

포항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구지문 / 한동대학교 건설도시환경공학부
by Gu Ja-moon

포항은 포항제철을 품고 있는 인구 50만의 공업도시이다. 포항은 현재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도농통합시가 되어 서울의 1.8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3년전까지만 해도 현재 면적의 6%에 35만의 인구를 지니고 있었다.

포항은 1960년대 중반만해도 인구 6만의 어업도시였는데 1970년 포항제철이 착공되면서부터 인구가 불어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이다.

포항하면 누구든 포항제철을 떠올리듯 포항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사실상 세계적인 규모인 포항제철이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지난 30년간의 포항의 변모에 대한 포항제철의 영향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문제 등 점점 악화되는 환경오염에 지역민들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포항은 오염된 공업도시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야까운 자연과 인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최대의 철강도시이면서도 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살기좋은 도시가 될 소질과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포항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동글게 만을 이루고 고층아파트들이 군집을 이루며 여기저기 솟아있는 넓다란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도시의 남쪽은 온통 공장지대인데 인접한 포항항과 영일만에는 커다란 화물선들이 장난감같이 줄을 지어 떠있다. 비행기를 타고 포항에 오는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포항임을 다시금 느끼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로 변에는 포항제철과 강원산업 등의 공장건물들이 우람한 모습들을 내 보이고 있다. 아, 이곳이 그 유명한 포항공단 지역이구나 하고 다시 한

번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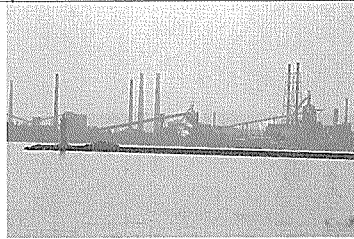
이 공항로는 가로수가 잘 가꾸어지고 길가의 공장이며 부속된 건물들도 잘 정리된 모습이어서 역시 세계적인 기업 포항제철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공장매연이 진하게 깔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냄새 또한 심하기에 실망을 해가면서 한참을 더 달린 후에야 주홍색 아치형의 형산강 다리가 나타나며 비로서 포항시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다리를 지나면서 형산강은 이제 바다에 다다르고 이곳에는 항상 바닷바람과 강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이 형산강은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원으로서 포항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다. 포항시는 생태적인 도시건설을 21세기 개발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목표의 성패도 이 형산강을 어떻게 정확하고 개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 할 정도로 포항에게 형산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형산강은 물이 팍 차 흐르며 꽤 넓은 모습인데 형산강 다리는 구다리 신다리 등 3개의 다리로 번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용하는 두개의 다리는 각각 2차선 3차선으로 하루종일 공단의 출퇴근 차량, 철강을 실은 트럭 등 온갖 차들이 바쁘게 왕래하는 곳으로 누구도 걸어서는 건너가 볼 엄두를 못내는 곳이다. 곧 이 다리들은 헐리고 새로운 다리가 세워진다는데, 이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면서도 좀더 낭만적인 아름다운 다리가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이 다리 주변과 이 형산강가가 좀더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이 강변에 위치하며 포항 시내 저 멀리서도 보이는 철도통제탑은 누구든 서울타워와 같은 전망대로 느끼기 십상인데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서 안타깝기 만하다.

이 형산강을 지나면서 길은 네다섯 갈래로 나뉘어지며 가지각색의 크고 작은 건물들과 간판들로 거리의 양측이 메워지기 시작한다. 강을 건너 이 형산로타리에서 직선으로 난 길이 통일로이다. 이 거리는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으로 넓다란 가로에 대한항공, 한국통신, 한국은행, 동대병원 등의 큰 건물들로 채워져 있고 거리나 건물의 스케일에서 포항의



여객선 터미널에서 보이는 풍경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바라 본 포항제철



포항 터미널에서 바라본 해변가 아파트군

중심가로와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짧게 끝나 버린다. 형산로타리에서 바로 왼쪽 길을 따라가면 길 한편의 넓은 터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커다랗게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형산강가이기도 하지만 빈터가 많고 조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들 경기장에서는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경기들이 열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음악회, 전람회, 토론회들이 자주 개최되어 시민들에게는 친숙한 곳이다. 형산로타리에서 바로 오른쪽의 길을 따라가면 포항의 중심가로 연결이 되는 형산로이다. 이 길은 각종 상점들이 가득 차 있고 오거리, 육거리로 불리는 방사선 형태의 도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포항의 중심 도로망은 방사형에 격자형을 결합시킨 조금은 독특한 형태로써 가로가 비교적 넓은 편이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넓은 로타리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건물의 형태며 행인들의 모습에서 포항 특유의 특징을 찾기는 힘들다. 다른 대도시에서 그러하듯 화려한 듯 하면서도 허술한 모습의 건물들과 커다란 간판들이 수없이 눈에 들어온다. 길 양측으로는 수많은 전봇대가 솟아있고 전기선이며 전화선들이 건물 주위를 어지럽게 지나가고 있다.

도심에는 언제나 자동차와 사람들이 흘러 넘친다. 차량보유대수가 인구비례 당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도심의 좁은 골목 골목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없이 자동차와 사람들이 제멋대로 뒤엉켜 있다. 그러나 포항의 교통소통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며 주차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 곳곳을 대체로 질주해 달려갈 수 있으니 말이다. 골목 골목은 좁고 정비되지 못하였지만 도심 전체가 비교적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된다.

포항의 도심부는 넓은 지역이 이미 크고 작은 건물들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도심의 외곽에는 아직 크고 작은 구릉들이 존재하는데 파헤쳐지고 벌거벗은 경우가 많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삭막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곳은 요즘 음 가뭄이 계속되고 산불까지 겹쳤는데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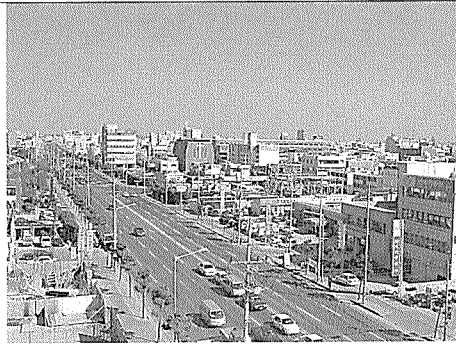
척박한 토질이라서 산림녹화에 애로점이 많다. 군데군데 송림과 관목숲이 보이기도 하지만 벌거숭이 구릉이며 야산들이 더욱더 눈에 띄이며 포항의 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릉들 사이로 특징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그룹들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대규모의 고층아파트군들이 그것이다. 일부 산등성이며 골짜기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수천세대씩의 대규모 아파트군들이 지어져서 포항의 새로운 모습을 이루었고 사람들의 거주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 20층짜리나 되는 고층의 아파트들이 높고 낮은 구릉들과 함께 더러는 구릉들보다 더욱 높이 솟아서 이 도시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내 곳곳의 빈땅과 재개발지역에도 거대한 고층아파트들과 조금은 작은 스케일의 저층아파트들이 여기저기 지어져서 기존의 동네들과 모양과 크기에서 많은 부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풍경들을 이루었다. 시내며 외곽을 운전해 가다보면 저층의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풍경속에서 갑자기 높고 덩치 큰 아파트 건물들이 시야를 사정없이 가로 막는다. 이 도시에서는 이상한 형태의 기계실 혹은 물탱크를 얹은 고층아파트군들로 스카이라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주 흔한 것이다.

50만의 도시이면서도 포항에는 역사적인 건물도 기념비적인 건물도 눈에 띄이지 않는다. 다른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큰 규모의 기차역도 광장도 시청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는 50만이지만 어쩌면 30년전 6만 규모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 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또한 이 도시에서는 보행자보다는 차량소통 위주로 버스교통 보다는 자가용 위주로 교통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도시 또한 이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으므로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연관성있게 개발되지 못하고 개구리 점프식으로 제각기 산만하게 자리잡고 개발되는 것이다.

이 도시에서는 걸어서 쇼핑하고 이야기하고 할 곳을 찾기가 힘이 든다. 길가에서는 잘 가꾸어진 가로수, 근린의 공원, 꽃밭, 녹지대를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시민들도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 이외에는 거리에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 도시는 시민들에게 도시미관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나 너무나 삭



포항시 전경



포항시 전경

막함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많은 주민들은 포항을 문화와 예술과 낭만이 없는 도시, 공장과 술집만 있는 도시라고 혹평을 서슴치 않는다. 이 도시에 공연장이며 박물관이며 스포츠센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음악하며 전람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며 행사들이 사람들이 손쉽게 닿을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별 효용이 없는 것이다. 시민들이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거리며 골목에 잠시 쉬거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하고 흥미있는 시설들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도시의 삭막함은 많이 치유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에는 시민들의 활동과 사회·경제적인 기능으로서의 장소성을 갖는 곳이 몇 군데 눈에 띈다. 육거리나 남빈사거리로 지칭되는 곳은 분수대 하나 없고 변변한 건물하나 없는 평범한 중심가 교통의 요지일 뿐이지만 이 두 로타리를 잇는 선상의 중앙로와 우체국골목은 포항의 변화가로서 충분한 장소성을 갖는 곳이다. 많은 옷가게, 음반가게, 다방, 카페, 극장들이 몰려 있고 미국풍의 맥도날드, 캔터키후라이드치킨, 피자헛이 있는 곳이다. 가게들이 밀집하고 차들이 세워지고 빠져나가는 이 넓지도 않은 이 골목은 10대와 20대들이 어울려져 젊음을 발산하는 곳이다. 이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잠시 정박한 미국합대의 사병들이 우루루 찾아오는 곳도 이곳이다. 서울의 명동이나 압구정동 보다도 더 멋쟁이가 많다는 곳도 이곳이다. 이곳이 없다면 포항의 젊은이들은 갈 곳을 잃을 것이다. 이곳이 없으며 포항 또한 활기를 잃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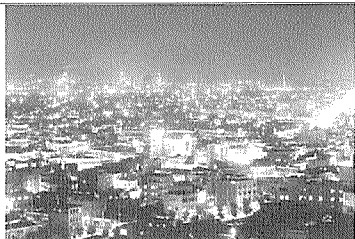
이곳에서 몇 블록 동쪽으로 가면 죽도어시장이 있고 바로 그옆은 바다이다. 이곳은 이 도시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서 어시장에는 횃집들이 떼지어 몰려 있고 조그만 만으로 이루어진 바다에는 오징어잡이배가 즐지어 정박하고 있다. 물이 혼탁하고 주위의 건물들이 허술하기에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얀 갈매기들이 떼지어 날고 갖가지 형태의 어선들이 즐비하고 갖가지 종류의 싱싱한 물고기들을 맛볼 수 있는 곳기에 이곳은 시민들에게는 아주 정겨움을 주는 곳이다. 어민들과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며 나이는 시민들에게는 싱싱한

횃가에 한잔 술을 위하여 찾아 드는 곳이다. 이곳 포항에서는 요즘도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 해산물의 오염이 적어서 안심하고 사시사철 활어회를 즐길 수 있다고들 말한다. 겨울 한철 청어며 꽂치를 추운 바닷바람에 얼리고 말려 만들어낸 과메기는 포항의 특산물로서 두름으로 엮여 말리는 모습 또한 진 풍경인데, 미역과 미나리에 싸 소주에 곁들여 먹는 맛이 일품이라 포항사람들은 과메기 맛 보기 위해 겨울을 기다린다. 이곳에서 좀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울릉도행 페리선착장이 있다. 울릉도로 가는 길은 뱃길뿐이기에 울릉도의 주민들과 울릉도행 관광객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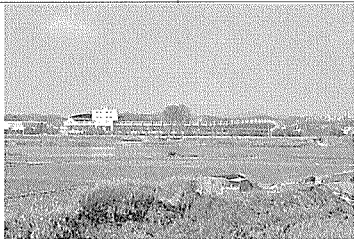
이곳에서 울릉도까지 쾌속정으로 겨우 세시간이 걸린다니 울릉도는 더 이상 멀고 먼 섬나라가 아니다. 울릉도에는 정작 일만오천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포항에는 더욱 많은 수의 울릉도 사람들이 정착해 있으니 이 포항에서는 “아름다운 울릉도 ~” 하는 가요가 “영일만 친구야 ~” 혹은 “아주까리 포항부두 ~” 하는 가요들 만큼이나 친숙함을 누렸을 것이다. 이 선착장을 지나 좀더 북쪽으로 가면 북부해수욕장이 나오며 드디어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곳은 최근에 폭넓은 도로가 바닷가를 따라 개통이 되었고 카페, 음식점, 노래방, 모텔들이 고층으로 모양 좋게 자리 잡은 곳이다. 긴 백사장이 있고 그 끝으로는 푸른 해송으로 뒤덮인 구릉이 보인다.

바다건너 오른쪽에는 특징적으로 조형화된 포항제철의 시설물들이 장난감같이 그러나 장대한 느낌으로 밤에는 휘황찬란한 불빛을 발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바다 저편 멀리로는 한반도의 꼬리를 이루는 장기곶이 내다보이고 거대한 화물선들이 왕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파도가 치고 바닷바람이 불고 이색적인 전망을 지닌 이 북부해수욕장은 24시간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느끼며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백사장에 쓰레기가 쌓이고 바닷물이 오염되어 냄새가 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아쉬움을 주는 도심 속의 바닷가가 송도해수욕장이다. 이 곳



포항시의 야경



포항시 공설운동장 전경



포항공과대학

은 오거리에서 동쪽으로 4 ~ 5분만 운전하면 닿을 수 있는 송림이 아름다운 유명한 여름 휴양지였다. 그러나 영일만에 방조제를 쌓은 후 조류가 바뀌어 아름답던 백사장이다 사실상 다 유실되고 뿔만 남았었다. 포항제철과 형산강을 지척에 두고 바닷물 또한 오염되었다. 송도는 아직도 시민들의 휴식처로 불리우지만 수송해운 모래시장에, 오염된 바닷물에, 지척으로 건너다 보이는 형산강 하구 저편의 연기를 내뿜는 포항제철의 압도적인 모습에 송도해수욕장의 옛 모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심속의 바닷가들을 어떻게 정화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곳을 오히려 포항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내보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 장소를 남쪽으로 옮겨 효곡동으로 가보자. 효곡동은 포항제철이 많은 투자와 정성을 들인 이제는 국내 굴지의 대학으로 성장한 포항공대와 산업과학연구소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학자며 교수들의 수도 많지만 이곳의 풍경은 한국의 도시라기 보다는 미국의 전원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넓은 가로와 잘 가꾸어진 숲 그리고 깨끗하게 지어진 학교건물, 연구소, 체육관, 아파트들이 있다. 또한 포항을 좀더 알려지게 하는 거대한 규모의 방사선 가속기의 건물이 있다. 포항에서 이곳만큼은 잘 계획되고 잘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포항이 선진국 수준의 도시임을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저명한 대학, 첨단 연구소, 산뜻한 환경을 지닌 이곳은 정말 포항의 큰 자랑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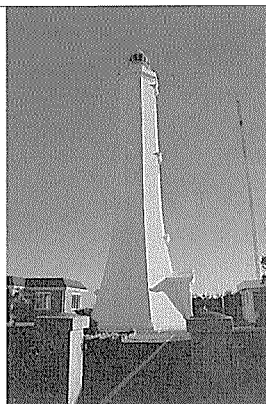
그러나 이곳을 거닐면서 마음속의 괴리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 중심가의 초라한 거리며 집들은 언제나 이곳같이 개발될 수 있단 말인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망하면서 자꾸 더럽고 정비되지 못한 그 저저거리를 떠 올리는 이가 의외로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 곳곳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권장해야 할 개발방식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항구는 항구대로, 연구 도시는 연구 도시대로의 맛과 냄새를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 옳은 이야기이다. 다만 모든 지역들이 골고루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형평성있게 개발되고 정비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다.

포항은 도시개발이며 건축에 있어서 어떠한 확고한 계획과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거대한 포항제철이 지어지고 연관 산업들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더불어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며 건물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지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도시는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하기 보다는 시행착오속의 허점 많은 도시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도시미관문제 등등 점점 악화되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모든 시민들의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시민들은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주거환경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물량적인 건설이며 생산보다는 환경의 질에 좀더 관심을 쏟게 되었다. '푸른파도 푸른꿈 푸른포항' 혹은 '21세기의 생태도시건설'이라는 포항시의 시정구호나 개발목표들 자체가 포항시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개탄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나가며, 좀더 환경친화적인 개발, 미래를 대비하는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도시는 좀더 살기 좋고 정감어린 장소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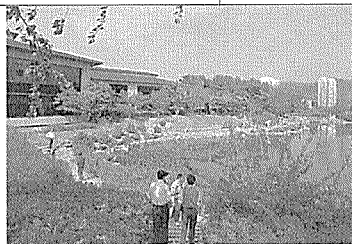
포항은 오염된 공업도시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을 가지고 있다. 최대의 철강도시이면서도 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여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곳이 바로 포항인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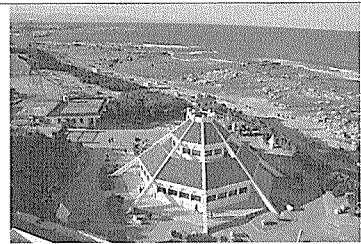
- 포항시, 포항, 1996.
- 포항시, 열린포항: 상옥에서 장기곶까지, 1997.7.
- 포항시, 우리고장 문화재, 1997.
- 포항시, 포항市史, 1987.
- 포항시, 포항의 歷史의 傳統, 1990.
-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포항지역 환경오염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4.5.
- 국토개발연구원, 21세기 장기종합개발을 위한 포항 도시기본계획변경 연구, 1995.



장기곶 등대



포항공과대학 구내



등대 박물관